



고운 별빛아래 장중한 화음 감동 그 이상...

'불심으로 승화된 장엄한 하모니를 연출했다.' 9월 13일 천태종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열린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중 마지막 순서로 14개 시도 연합합창단 120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음성공양을 선사했다.



14개 합창단 각 3곡씩 공연, 청중 매료시켜
 '붓다의 노래' 등 새곡도...참가자 전원 한 무대 '장엄'
 5000여 관객 5분간 기립박수, 음성공양에 화답

쉴새없이 박수를 날리면서도 불구하고 5000여 관객들이 불음의 매아리를 듣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제 6회 전국불교음악제 현장

"정진하세, 정진하-아세 卍"
 별이 빛나는 새벽녘의 찬란한 가을밤은 불음의 매아리로 가득했다.
 9월 12일 오후 7시30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 특설무대, 천태종과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가 열렸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10개 종단 소속 전국 14개 시·도 합창단이 참가한 이날 음악회는 육법공양 의식과 이선옥 무용단의 선무 공연에 이어 성악가인 김재일, 고유경, 김양희, 최현진 등으로 구성된 불교4중창단의 '정진의 노래'로 시작됐다.
 1부 순서에서는 경기북, 전남, 경북 등 6개 합창단이, 2부에서는 경기남, 전북, 서울 등 8개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주요 레퍼

토리는 '관음의 빛' '보리심' '산사' '귀의하옵고' '기쁜날' 등 인기 찬불가들, 보통 1개의 합창단이 2~3 곡을 음성공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최영철씨가 작사 작곡한 '구인사가 좋아'라 '붓다의 노래' 등이 전남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새롭게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명을 받아 온통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구인사 대조사전을 무대로 합창단들의 유니폼이 고운 오방색 한복에서부터 분홍색 금박 드레스 등 저마다 개성있게 연출돼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천태종-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구인사서 열려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순서였다.
 14개 합창단 1200여명이 모두 함께 무대에 올라 천태종 합창단 지휘자인 이상규씨의 지휘에 맞춰 5천여 관객들에게 '공심공체 불어 노래' 등 새 곡을 연달아 선사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화음이 모여 불심으로 승화시킨 환상의 하

모니였다. 이 무대에선 1등도 꼴찌도 없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발음을 대중에게 음성공양하는 불제자들만 있을 뿐이다.
 관객들은 5분이나 계속되는 환희성과 기립박수로 장엄하고 화려한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에 화답했다.
 객석 맨앞줄에서 끝까지 음악회를 지켜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환희심이 느껴진다. 불교합창단은 불교의식 수행의 꽃이라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그동안 천상의 목소리로 곱게 듣고 뒤는 기량을 이렇게 직접 듣고 보니 감동스러웠다"며 "소백산 곳곳에 합창단들의 음성공양이 크게 울려 퍼져 불국토를 이루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구인사 신도인 김성애 보살(48·서울 구로구 독산동)은 "부처님의 지혜와 보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사상을 선을에 실은 찬불가를 주제로 한 오늘 합창 공연은 우리 중생들과 같은 메마른 현대인들의 가슴에 한모금의 청량한 감로법음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즐거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운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과 평화로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합창단원들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또한 세상에 정법을 널리 알려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포교사"라며 출연자들을 격려했다.



강영화 인제대 교수가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열린 '불교음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불교합창단은 이타보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묘음보살의 미묘한 음성처럼 스스로를 깔고 뒤아 미묘음을 갖춰 법석을 거룩하게 장엄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해야 합니다."
 천태종과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의 일환으로 9월 13일 단양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열린 '불교음악 세미나'에서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스님은 음성포교에 나선 합창단원들이 찬불가 보급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불가 제 맛 살리려면 우리 전통 화성법으로"

강영화 교수, '불교음악 세미나'서 지적
 용암 스님은 이어 "찬불가 포교에 임하는 합창단원들은 음악인이기 이전에 소속 사찰에서 수행인으로서 숭신수법하는 모범자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종교음악이 일반음악과 다른 점은 기교나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심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영화 인제대 음악학과 외래교수는 "찬불가를 서양의 화성법인 평균율로 작곡하게 되면 가사가 아무리 불교적이라도 찬송가같은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불교음악다운 찬불가를 만들려면 한국적이면서 민족정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세 화성법으로 작곡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현재 대중화 돼 있는 국악찬불가는 음계의 구조에 있어서 전통음악의 순정율이 아닌 평균율로 이미 서양화 돼 있어 단지 서양악기가 아닌 국악기로 연주한다는 것이 국악의 전통성에 별 의미가 없어졌다"며 "찬불가의 멋과 정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국악기를 개량한다면 한층 높은 우리의 불교음악이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삼보불교음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왼쪽)이 전국불교음악제 개최를 운문 스님으로부터 이양받고 있다.

내년엔 삼양월드경기장에서 만나오
 한편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2001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국불교음악제는 제1회 세종문화회관, 제2회 부산 삼광사, 제3회 대구 동화사, 제4회 세종문화회관, 제5회 경주 불국사 등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음악 활성화를 취지로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제 7회 음악제는 내년 9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양월드경기장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단양 구인사/글=김주ыл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가격 245,000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찌기만 해도 오정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약돌사입니다. 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침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 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산(山)교수 발표기사 발췌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스 대상증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이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에 70~80℃, 1시간후 80℃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율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로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온역할 밖에는 안드로미다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숙이 들어간다. (체장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常溫(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인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뺏기게 된다.	常溫(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용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낸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